

계명의 한 모습
KEIMYUNG IMAGES

계명대학교 창립 1899
Keimyung University, Founded 1899

계명의 한 모습 KEIMYUNG IMAGES



동산캠퍼스
Dongsan Campus

대명캠퍼스
Daemyung Campus

성서캠퍼스
Seongseo Campus

KEIMYUNG UNIVERSITY

계명의 한 모습

‘영원한 계명’을 향한 발돋움

처음에 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1899년

개인적인 영화를 이역만리에 남겨두고

손짓 발짓으로 낯선 사람들과 소통하는 선교사들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에는 이국땅의 백성들을 치료하는 히포크라테스의 손길로 나타났고,

어떤 때에는 신학문으로 눈을 열어주는 페스탈로치의 손길로 나타났습니다.

한 모습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개인적인 욕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두고

온갖 어려움을 감수하며 최고의 고등교육기관을 만들려는 선각자들의 열망이 담겨있었습니다.

어떤 때에는 망치로 청석산을 깨는 개척의 손길로 나타났고,

어떤 때에는 '고전적 캠퍼스'를 조성하는 예술의 손길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 모습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르네상스형 세계시민의 예지와 통찰력으로

청결, 정직, 절약, 융합을 실천하며 '티끌 모아 태산'을 만들었습니다.

태산에는 '학문적 정보'의 곡물을 가는 맷돌이 있고,

잘 갈아진 곡물을 '인류를 위한 지혜'로 발효시킬 장독이 있습니다.

진리를 닦은 청금석이 있고, '창의적 국제인'의 자화상을 그려갈 타불라라사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들어와 더 좋은 사람이 되어 나가려는 '유일한 존재'들이

계명아트센터와 계명한학촌, 아담스채플과 행소박물관,

그리고 동산도서관에서 진리와 정의와 사랑의 빛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한 모습이 새로 생겨날 것입니다.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 돌 하나, 건물 한동에 내포된 심오한 의미가 조화를 이루어

‘영원한 계명’을 잉태하고 또 다른 계명의 한 모습으로 태어날 것입니다.

달성캠퍼스와 칠곡캠퍼스의 완성으로 다섯 개의 캠퍼스가 하나가 되어

학문의 더 높은 탁월성과 더 높은 윤리성을 담을 그릇이 될 것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동양과 서양을 아우르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넘나들면서

지역과 세계를 향해 빛을 열어갈 것입니다.

지금의 한 모습들과 새로 생겨날 한 모습들은

세계인으로부터 최고의 대학, 최고의 캠퍼스라는 이름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확신하면서 ‘영원한 계명’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KEIMYUNG IMAGES

Aspiring towards ‘Everlasting Keimyung’

When the University was founded in 1899, there were images.

Leaving personal comfort for a foreign land, gesticulating to communicate with strangers, the missionaries’ caring minds are contained therein.

Sometimes curing the people, they appeared as Hippocrates’ hands,

other times enlightening through modern learning, they appeared as Pestalozzi’s hands.

New images appeared.

Sacrificing their personal needs to the love of Jesus Christ, enduring hardships to establish a leading institute of higher education, the pioneers’ aspirations are contained therein.

Sometimes cracking the rocky mountain with hammers, they appeared as frontier hands, other times founding a ‘Classical Campus,’ they appeared as artistic hands.

Further new images have emerged.

With the visions and insights of a Renaissance world citizen, cleanliness, honesty, frugality, and convergence made the proverb ‘Many a mickle makes a muckle’ come true.

Inside the muckle are the millstones to grind the grains of information and knowledge and earthen pots to ferment the ground grains to wisdom for humanity, Lapis Lazuli, containing the truth of the ‘one and only beings’ who, entering as good people, cultivate their personalities to become even better,

Tabula Rasa, on which they draw their own portraits of ‘Creative Global Citizens.’

Those beings are creating the light of truth, justice, and love, in Keimyung Art Center, Keimyung Hanhakchon, Hengso Museum and Dongsan Library.

Even more new images will arise.

Profound meanings nested in each grass, tree, stone, and building will form harmony to conceive ‘Everlasting Keimyung’ and give birth to other new Keimyung images.

The five campuses, on the completion of Dalsung and Chilgok Campuses, will create a star and become a bowl filled with a higher level of academic excellence and ethicality.

All the academic disciplines, bringing together East and West, embracing past, present, and future, and sharing the light locally and globally, will provide nourishment to all those beings.

The images now and to come will combine and spread beyond regional borders, receiving worldwide recognition as a first-rate university and an exemplary campus.

Confident that the day will come, we pray for ‘Everlasting Keimyung.’



▲ 메타세쿼이아 길
Metasequoia Road

KEIMYUNG IMAGES

Chinese

English

French

German

Indonesian

Japanese

Korean

Russian

Spanish

Thai

Turkish

Uzbek

Vietnamese



Contents



1

16

교명석(校名石)

The Name Stone Slabs



2

18

제중원(濟衆院)

Jejungwon



3

20

대명캠퍼스 운동장 공사

Athletic Field Construction,
Daemyung Campus

4

22

대명캠퍼스 바위산

The Original Rock Mountain,
Daemyung Campus

5

24

대명노천강당

The Amphitheater,
Daemyung Campus

6

28

성서캠퍼스 정문

The Main G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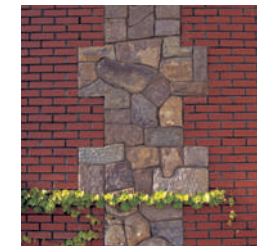


7

32

계명인 상(像)

The Keimyung Scholar



8

36

본관 벽 대구읍성(大邱邑城)
성곽돌The City Wall Stones,
Main Building

9

38

접견실 유리창
설형문자(楔形文字)The Glass Pane,
Waiting Room



10

40

계명의 교목 은행나무
The Ginkgo Tree



11

44

계명의 교화 이팝나무 꽃
The Retusa Fringe Tree Blossoms



12

48

계명의 교석 LAPIS LAZULI
(청금석, 靑金石)
LAPIS LAZULI,
Keimyung University Stone



13

52

기념시비(詩碑)
A Poetic Monument



22

86

오페라 공연
Opera Performances



23

88

의양관 운제실 명화
Famous Paintings in the
Woonje Room of the
Uiyang Hall



24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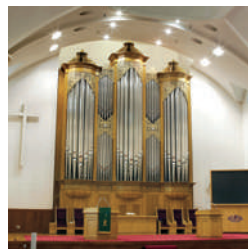
선비교
The Scholar's Bridge



25

94

계명한학촌 전통혼례
Keimyung Hanhakchon
Traditional Wedding



14

56

아담스채플 파이프 오르간
The Pipe Organ



15

60

억새
Miscanthus



16

62

짚신
Straw Shoes



17

66

청라언덕
Cheongna Hill



26

96

장혜진 양궁장
Chang Hyejin Archery Center



27

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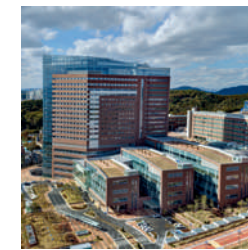
국제 쇼팽 피아노 콩쿠르
The International Chopin
Piano Competition



28

100

2018 예술의전당 초청
대학오케스트라 축제
2018 Seoul Arts Center
University Orchestra Festival



29

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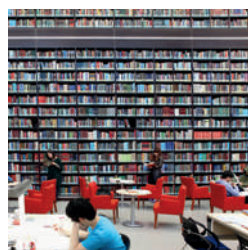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Keimyung University
Dongsan Hospital



18

70

대구 최초의 서양 사과나무
The First Western Apple Tree
in Daegu



19

74

의학도서관
The Medical Library



20

80

총학생회 활동
Student Council Activities



21

84

BISA팀 자율주행자동차
BISA Team's Autonomous
Vehicle



30

106

우물 정(井)
Well



31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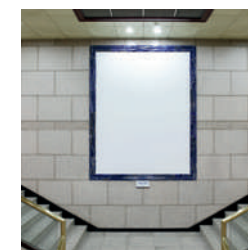
맷돌
Millstone



32

110

장독
Dok



33

계명 초상화, Tabula Rasa
(우리가 얼굴을 가질 때까지)
The Keimyung Portrait,
Tabula Rasa



교명석(校名石)

The Name Stone Slabs

01

두 권의 책 모양의 오석(烏石)으로 된 계명대학교 교명석(校名石)에는 동양학문의 고전적 언어인 한자와 현재 국제 통용어인 영어로 각각 계명대학교 교명이 새겨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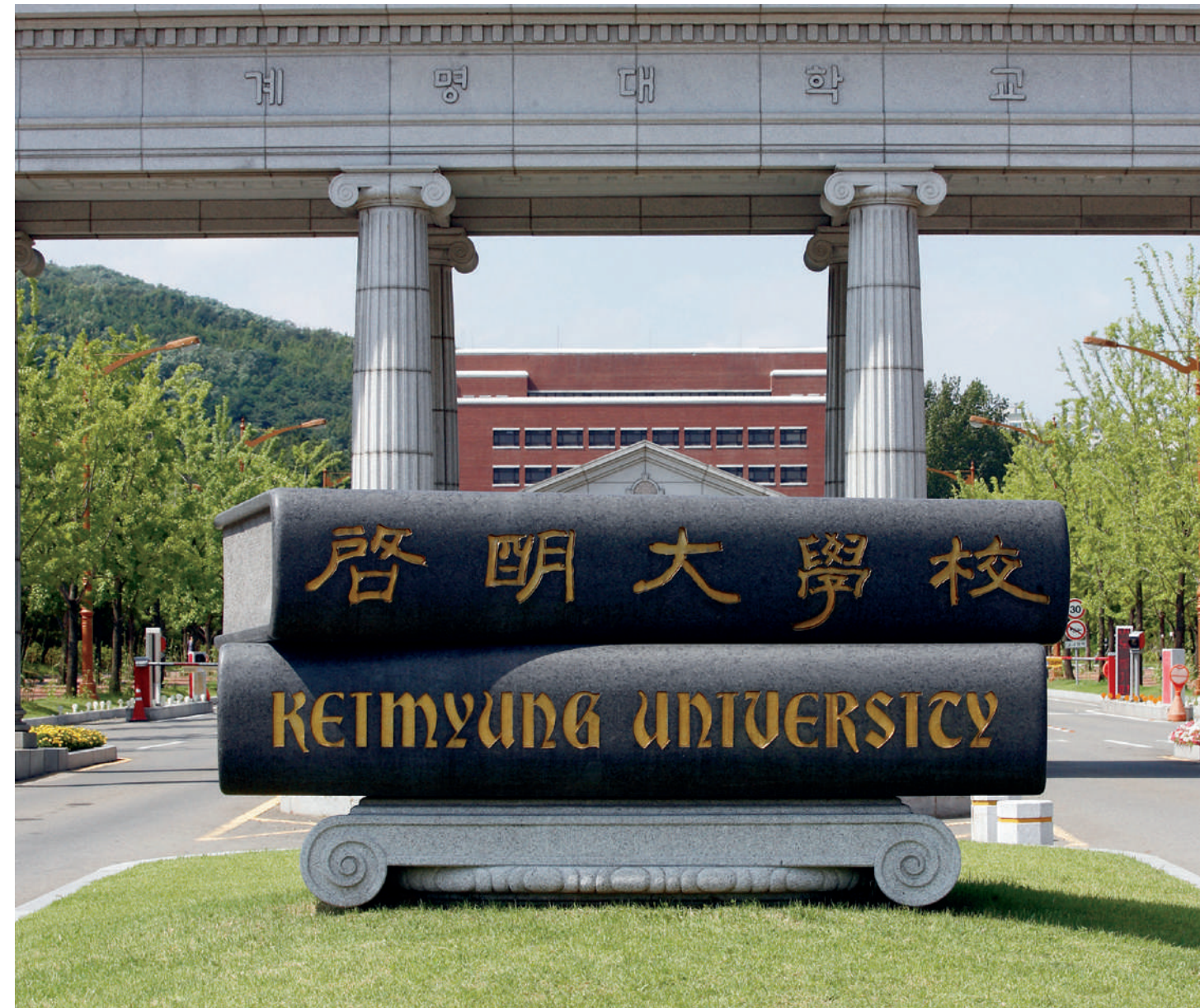
이 두 책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성경의 신구약을 의미할 수도 있고 동양과 서양의 학문적 전통을 상징할 수도 있다. 한자 교명은 서예가 김양동 교수의 글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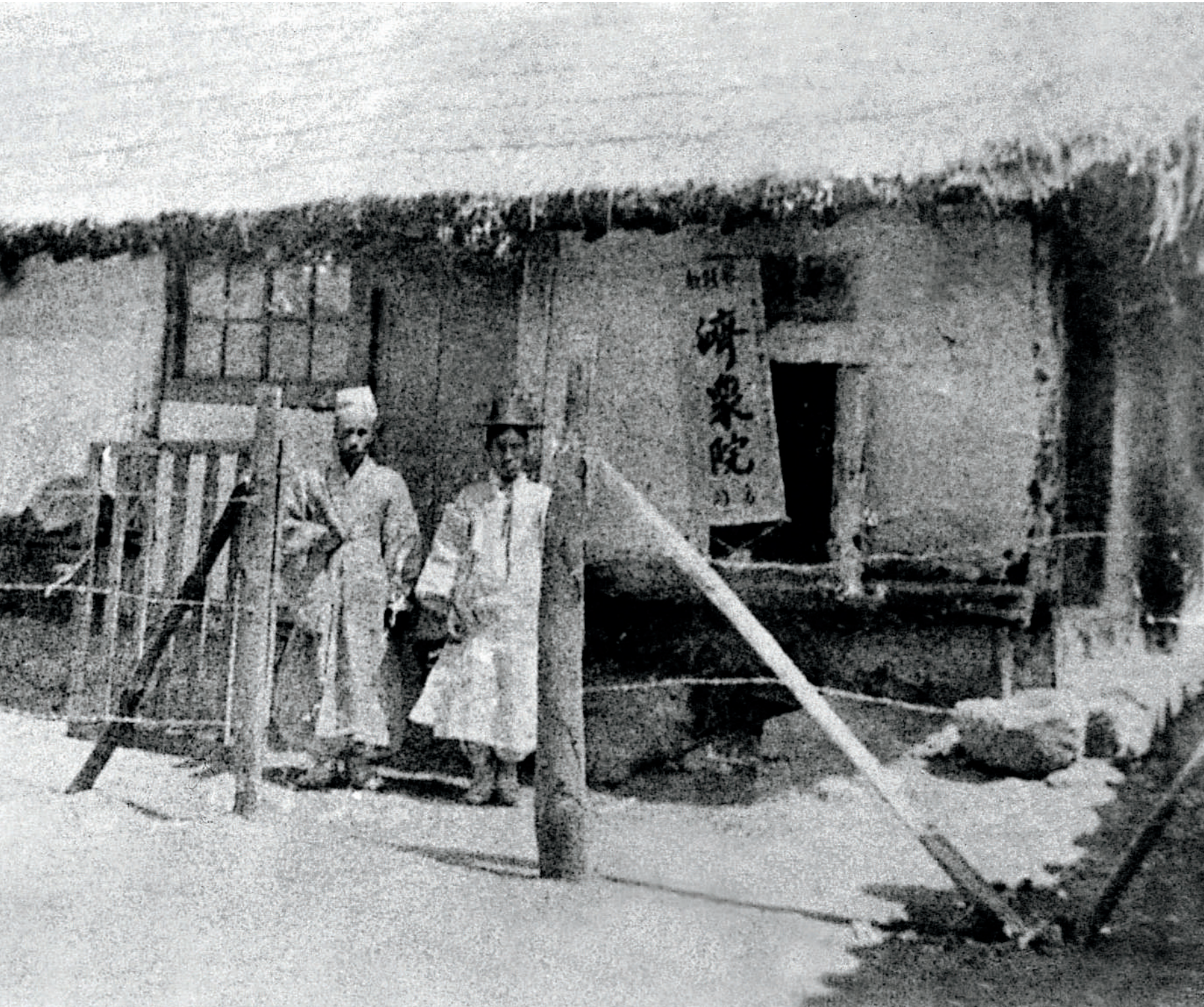
The two black name stone slabs are sculptured in the shape of books, each with the name of the University inscribed on them. On one slab, the name is in Chinese, the classical language of oriental scholarship, and on the other it is in English, the current mode of international communication. The two books may be construed as representing either the Old and the New Testaments of the Christian bible, or the compilation of Eastern and Western scholarly traditions.

The name inscribed in Chinese characters is based on the calligraphy of Prof. Kim Yangdong.

▶ 교명석(校名石)

The Name Stone Slabs





제중원(濟衆院)

Jejungwon

02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장인차(Dr. Woodbridge O. Johnson, 1869~1951) 의료선교사는 성탄절이자 주일인 1897년 12월 25일 대구에 왔다. 그는 2년 뒤 1899년 7월, 지금의 대구시 중구 남성로 50 대구선교기지 내 초가 한 동에 '미국약방'이라는 간판을 달고 아픈 사람들에게 약을 나누어주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치유사역의 모든 준비를 갖추어 '제중원(濟衆院)'이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인 치료활동을 하였다. 제중이란 '못 사람을 구제한다'는 뜻으로, 기독교의 평등과 박애정신을 바탕으로 한 개원의 정신을 잘 나타낸다. 제중원은 영남지역 최초로 서양의술을 도입한 진료소이며 후에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으로 발전한다. 현재 종합대학으로서 위용을 갖춘 계명대학교가 이 작고 누추한 곳에서 비롯되었다.

A medical missionary dispatched by the Northern Presbyterian Church of the United States, Dr. Woodbridge O. Johnson (1869~1951, Korean name Jang Incha) arrived in Daegu on Christmas Day, 1897, which happened to be a Sunday. Two years later in 1899, he put up a sign saying 'American Pharmacy' (*Miguk Yakbang*) on a small straw-roofed house within the Daegu missionary branch, located in today's Namseong-ro 50, Jung-gu, Daegu, and began to distribute medicine to sick people. After making various arrangements for the setting up of a Christian ministry of healing he began to provide full-scale medical treatment under the new name of 'Jejungwon.' Jejung refers to 'relieving the public,' so this name conveyed the Christian spirit of equality and philanthropy central to the first Western medical institution in the Yeongnam region. Significantly, it was also the precursor of Keimyung University's Dongsan Medical Center. The internationally accredited Keimyung University can therefore trace its origins back to this small, humble place.

제중원(濟衆院) ◀
Jejungwon (1899)

대명캠퍼스 운동장 공사

Athletic Field Construction, Daemyung Campus

03

대명캠퍼스는 대구의 근대화를 선도한 기독교 문화의 요람으로 계명을 일군 선구자들의 정성과 맘이 배여 있는 역사적인 터전이다. 당시 유일한 지원처는 미국선교회였으나 캠퍼스 조성을 위한 물자와 재정은 늘 부족하였다. 계명대학교는 재정확보를 위해 밤낮으로 뛰어다닐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노고를 통해 황량한 청석산에 아름다운 건물을 차례로 세워나갈 수 있었다. 1964년 운동장을 만드는 공사 또한 대역사(大役事)였다.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가 혼연일체가 되어 바위를 깨고 돌을 날랐지만 망치, 곡괭이, 끌 등의 기초적인 장비와 인력만으로는 속도가 더디고 경비부담이 커졌다. 그러나 다행히 이를 안 공병부대 장교인 동문의 도움으로 중장비를 투입하여 수월하게 공사를 마칠 수 있었다.

The Daemyung Campus, a cradle of Christian culture that led the modernization of Daegu, was the historical base of the pioneers of Keimyung University, bearing witness to their devotion and efforts. In those days, the only assistance came from the American mission, but there was always a shortage of funds and supplies needed to create the campus. Keimyung University had no choice but to exert all possible efforts to secure finance. These endeavors resulted in the gradual construction of fine buildings on the previously desolate rock mountain. The construction of the athletic field in 1964 by cutting through the rocks was tremendously laborious. Although faculty and staff members, students, and their parents worked together as one to cut and move the stones, with such basic tools as hammers, pickaxes, and chisels, it slowed the work process and was becoming more costly. Fortunately, however, with the help of alumni who worked as an engineering unit officer, heavy vehicles were eventually deployed and the construction could be successfully completed.

▶ 대명캠퍼스 운동장 공사 (1964)

Athletic Field Construction, Daemyung Campus (1964)





대명캠퍼스 바위산

The Original Rock Mountain, Daemyung Campus

04

1954년 계명대학교가 고등교육 캠퍼스를 처음 조성할 당시 대명캠퍼스는 대구시 민들의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바위 언덕이었다. 이 언덕을 당시에는 “청석 바위 산”이라 불렀다. 바위산에는 어떤 나무나 가시덤불도 자랄 수가 없었고 생존력이 강 인한 잡초만이 여기 저기 간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이제는 청석 바위 옛 언덕을 찾아 볼 수 없지만 그 옛날 계명 교정의 한 모습을 보 존해 놓았다. 대명캠퍼스 정문에서 미술대학으로 넘어가는 언덕길가에 옛 모습을 남 겨 두고 “이런 바위산을 깎아 오늘을 마련했다”라고 서양화가 극재 정점식 명예교수 의 글씨로 새겨 놓았다.

When the University first created its academic campus in 1954, the Daemyung campus was located on a rocky hill far away from the inhabited center of the city. This hill was referred to in the vernacular simply as the “rock mountain.” It was indeed a hill of shale rocks, on which absolutely no trees or bushes and scarcely a few strains of the most tenacious weeds could take root for a brief season.

The rock mound in Daemyung Campus is a remnant of this original terrain. The inscription on the enclosing wall, written by painter and Professor Emeritus Jung Jeumsik (pen name Gukje), reads: “We have chiseled away at this rock mountain in preparation for today.”

대명캠퍼스 바위산 ◀

The Original Rock Mountain, Daemyung Campus

대명노천강당

The Amphitheater, Daemyung Campus

05



대명동 교정에 있는 노천강당은 1960년 초에 건설되었다. 재원은 아담스 선교사(당시 이사장)의 여름별장을 처분해서 부분적으로 충당하였으나 인건비가 부족하여 공사 자체를 자원봉사자들의 노동에 의존해야 했다. 봉사자들은 당시 계명대학교 교직원과 학생, 자원봉사자로 한국에 와 있던 미국 대학생들이었다.

공사는 어려운 지형, 항상 부족한 장비와 건설재료, 전문인이 거의 전무한 상태, 아무런 건설 경험이 없는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의 어설픈 노동 등의 악조건 속에서 힘들게 진행되었다. 이사장과 학장(신태식) 집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의 중참과 간식을 만들어 나르기에 바빴다. 아담스 선교사는 매일같이 공사장에 나와서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였으며 때로는 매우 진지하게 미소 지으며 “만일 노천강당 공사에 조금이라도 하자가 발생하면 내가 죽은 후에 악령이 되어 돌아와 여러분을 평생 괴롭힐 테니 알아서 잘하시오”라며 위협(?)까지 했다.

공사는 순조로이 완공되었고 1963년 4월 헌당예배를 드림으로써 한국 남부에 고대희랍의 노천강당을 모형으로 한 반원의 노천강당, 그것도 주로 한국과 미국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의 노동으로 건설된, 1800명을 수용하는 노천강당이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그 후 증축하여 지금은 2500여명 수용이 가능하다) 그 해 부활절에는 대구지역 교회의 합동 예배로 미국 버지니아 주 유니온 신학대학원의 유명한 학자 애플비 목사님의 설교가 노천강당에서 진행되었다.

대명노천강당은 계명가족이 여전히 애용하는 장소로써 이른 아침 기도회 모임, 오후에는 각종 음악회, 저녁에는 다양한 음악, 무용, 연극 등의 행사가 끊이지 않는 공간이다. 그리고 고생한 자원봉사자들 중에 아직까지 어느 누구도 고인이 되신 아담스 선교사의 심야 방문을 받은 사람은 없다고 한다.

대명노천강당 ◀

The Amphitheater, Daemyung Campus



The University has two amphitheaters - one in each campus. The smaller of these, in the Daemyung Campus, was constructed in the early 1960's, during the administration of Board Chairman Edward Adams and President Synn Taisik. The construction cost was partially borne by Rev. Dr. Adams, who had sold his summer beach-house in Daechon. However, due to overall lack of funds, the construction was executed thanks to the physical labor of volunteer workers, including College staff, students, and a handful of American college students who were doing volunteer work in Korea.

The construction actually caused the administrators great concern, for a number of reasons: the site was a difficult terrain to negotiate; there was a constant shortage of equipment and materials; and the workers were almost all untrained and inexperienced volunteers. The officers of the University therefore pitched in with the volunteer workers, encouraging them, and appealing for careful workmanship. The normally gentle Rev. Dr. Adams even managed to inspire the workers through his cryptic grin, stating (in jest) that if anything went astray with any part of the construction, he would come back after death as a frightful ghost, and haunt the workers for the rest of their lives.

Fortunately, the construction was completed without any untoward incidents, and the dedication service was held in April 1963. The Easter Service that year was given jointly by the churches in Daegu at the new amphitheater, with a seating capacity of 1,800. (It has since been extended to accommodate 2,500.) The sermon at the service was delivered by Rev. Dr. Appleby, a renowned minister at the Union Theological Seminary in Virginia. Thus, the very first amphitheater in the sou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modelled after the classical Greek amphitheater, was born at Keimyung University. Furthermore, it was constructed mainly by Korean and American volunteer college students.

The amphitheater is still a very favored place for early morning prayer meetings, afternoon concert programs, and various evening events, involving music, drama, and dance. Finally, none of the original volunteer workers has ever experienced a midnight visitation by the late Reverend Doctor... so far!

대명노천강당 ◀

The Amphitheater, Daemyung Campus

성서캠퍼스 정문

The Main Gate

06

창립 100주년을 맞아 건축한 성서캠퍼스 정문은 세 개의 구조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심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구조물 상단에는 계명대학교 교명이 한글로 새겨져 있다.

이 세 구조물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동시에 계명대학교 교육이념인 진리, 정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문에는 12개의 이오니아식 기둥이 두 줄로 서 있다. 앞줄의 12개 기둥은 예수님의 12제자를 상징하고 뒷줄의 12개 기둥은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님 제자들의 제자들, 즉 계명의 구성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구조물과 기둥들은 진리와 정의와 사랑의 나라에 이르는 행로이다.

The Main Gate of the Seongseo Campus, constructed on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 University, consists of three structures, with the middle one forming a natural center, in the entablature of which the name of Keimyung University is written in Korean.

The tripartite edifice represents the triune doctrine of Christianity, as well as the educational precept of Keimyung University - "For the Kingdom of Truth, Justice, and Love" - with God the Father and Love forming the central portions of the edifice, respectively.

The structures also have two rows of twelve Ionic columns each. The front row represents the Twelve Apostles, while the rear row stands for the disciples after the time of Christ, including the members of the present Keimyung academic family. These structures and columns together form the gateways to the Kingdom of Truth, Justice, and Love.

▶ 성서캠퍼스 정문

Main Gate, Seongseo Campus





계명인 상(像)

The Keimyung Scholar

07

계명대학교는 10개의 존재적 실체와 10개의 실존적 가치를 추앙한다. 그 실체는 나, 너, 계명, 이웃, 한국, 인류, 자연, 교회, 예수, 하나님이고, 그 가치는 진리, 정의, 사랑, 나라, 학문, 탁월, 윤리, 봉사, 은혜, 구원이다. 이 실체와 가치를 우리가 교육하는 10개의 언어 -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독어, 불어, 노어, 나전어, 히랍어, 히브리어 - 로 책을 상징하는 돌에다 새겼다.

윗부분에는 구약성서의 첫 구절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아랫 부분에는 신약성서의 마지막 구절인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를 새김으로써 계명대학교의 창학정신과 교육이념, 교육지표를 명시하고 있다.

계명대학교는 수직적인 돌 - 계명인은 수평적인 돌 - 책에 기록된 실체와 가치를 열린 마음의 눈으로 항상 숙고하고 경외하며 삶의 본질로 삼는다.

Keimyung University ascribes cardinal importance to 10 ontological realities and 10 existential values. The realities are: I, You, Keimyung, Neighbor, Korea, Humanity, Nature, Church, Christ, and God. The values are: Truth, Justice, Love, Community, Scholarship, Excellence, Ethics, Service, Grace, and Salvation. These 10 realities and 10 values are inscribed in the flat stone, representing the Keimyung book of learning, in the 10 languages that are taught at Keimyung University: Korean, Chinese, Japanese, English, German, French, Russian, Latin, Greek, and Hebrew. On the upper part of this stone, the very first verse of the Old Testament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is inscribed, while on the lower part, the very last verse of the New Testament (“The grace of the Lord Jesus be with you all.”) is engraved, both inscriptions being in Hebrew. These reflect the founding principles of the University, along with its educational precepts and objectives. The vertical stone, with its circular hole, represents the ideal Keimyung scholar, with an open heart and inner eyes, reading the Keimyung book of learning that explicates the University’s ontological realities and the existential values.

▶ 계명인 상(像)

The Keimyung Scholar



בְּרֵאשִׁית בְּרָא אֱלֹהִים

HUMANITY MORALITY

SALVATIO

JUSTICE

AMOUR

학문

啓明

NACHBAR

TU

國

おんけい

ECCLESIA

한국

WAHRHEIT

たけのこ

Κυρίου Ἰησοῦ μετὰ πάντων

ОБРАЗОВАНИЕ

본관 벽 대구읍성(大邱邑城) 성곽돌

08

The City Wall Stones, Main Building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본관 전면 벽에는 1736년 조선 영조시대 대구읍성(大邱邑城)을 축조하면서 사용된 성곽 돌들이 박혀 있다. 이 돌들은 20세기 초 일본인들에 의해 대구읍성이 해체되면서 여기저기 흩어졌고 계성학교와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것을 본관 신축과 함께 구하여 여기 부착하였다. 이는 지역적으로 대구에 위치한 계명대학교가 우리 고장,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지키고 계승, 발전시킨다는 다짐을 하고자 함이다.

The pale purple-brown sandstone slabs interlaid between the regular red bricks are from the old city walls of Daegu, which were constructed during the reign of King Yeongjo in 1736 in the Joseon Dynasty.

The wall was torn down by Japanese colonizers at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and the stones dispersed to various locations. Many of these were subsequently gathered by us, some from Keisung School and some from private collectors. They were then interlaid here, on the front facade of the Main Building, to indicate our duty and resolve to be the guardian-nurturers of the history and culture of our region and our country.

▶ 성서본관 벽 대구읍성(大邱邑城) 성곽돌
The City Wall Stones, Seongseo Campus Main Building



접견실 유리창 설형문자(楔形文字)

The Glass Pane, Waiting Room

09

본관 접견실 유리창에는 특별한 그림이 새겨져 있다. 이 식각판화(蝕刻版畫)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인류 역사의 초창기인 수메르(Sumer) 시대의 점토판(粘土板)에 새겨진 설형문자(楔形文字)를 따온 것이다.

이 썬기문자는 “신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라. 인간의 나날은 짧고 어리석으나 신은 영원하고 지혜로우시다”라고 적고 있다.

The Glass Pane in the Waiting Room of the Main Hall has had a special design etched into it. This etching is taken from a clay tablet incised with cuneiform writings that date back to the Sumerian civilization of about 4,000 years ago. The cuneiform writing reads: “Fear the gods and worship them, for theirs are eternity and wisdom, while the days of man are short and ignorant.”

▶ 성서본관 접견실 유리창 설형문자

The Glass Pane, Waiting Room, Seongseo Campus Main Building



계명의 교목 은행나무

The Ginkgo Tree

10

은행나무는 가운데가 갈라져 들어간 부채꼴 모양의 노란 잎과 약재와 식용으로 쓰이는 노란 열매를 맺는 나자식물과의 나무이다. 은행나무는 식물의 진화 단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진화를 한 나무로 보인다. 2억년 이상을 생존해 왔으며 가장 오래 장수하는 나무로 알려져 있다. 아직도 야생에서 뿐만 아니라 집이나 거리에서 아름다운 자태를 보여준다. 괴테는 가운데가 갈라져 있는 은행나무 잎이 동서양의 조화로운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모든 대립적인 가치와 양상을 평화롭게 통합하는 상징으로 칭송한 바 있다. 이 은행나무가 바로 계명의 교목이다.

The Ginkgo(ginkgo biloba) is a handsome gymnospermous tree with fan-shaped leaves that are deeply incised in the middle. It bears a yellow fruit that contains an edible kernel and is perhaps the most successful tree in the evolution of plant species, having survived for more than 200 million years. The Ginkgo is still going strong, not only prospering in nature but also adorning many a home and street. Goethe once praised the ginkgo leaf, the incised shape of which symbolized for him a harmonious union of the East and the West and, by extension, a peaceful orchestration of all antipodal modes and values.

The Ginkgo biloba is the Keimyung University Tree.

▶ 가을 캠퍼스 은행나무
Autumn Campus with Ginkgo Trees



